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3강 | 태평천하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태평천하’ 내용이 좀 헷갈려서요.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한데?



음, 일단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이나 주제 같은 거요.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기, 1930년대 후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내용은 한마디로 풍자라고 할 수 있지. 특히 세태 풍자,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풍자가 핵심이야.



풍자요? 어떤 점을 풍자하는 건가요? 윤 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윤 직원 영감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아주 전형적인 수전노이자 봉건적인 인물이야. 돈밖에 모르고, 시대 변화는 전혀 못 읽는 사람이지. 작가는 윤 직원 영감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리석음, 특히 일제 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로 착각하는 무지함을 풍자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제목이 ‘태평천하’인데 내용이랑 반대되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라는 거죠?

정확해! 윤 직원 영감에게는 일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태평천하’이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꼬집는 거야.



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가요? 윤 직원 영감이 엄청 화내는 장면이 기억나요.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3강 | 태평천하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웃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술**(봄가을에 다듬어 지어서 입는 모시옷) 것이요, 머리에는 탕건에 받쳐 **죽영(竹纓)**(갓끈) 달린 통영갓[統營笠]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숨을 한 근씩은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신을 조마맣게 신고, 바른손에는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자단나무 목재) **개화장**(개화기에 자주 쓰인, 짧은 지팡이)이요, 왼손에는 서른네 살배기 묵직한 합죽선(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이 **풍신**(사람의 겉모양. =풍채)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一道)의 방백(方伯)**(한 지역의 관찰사. 한 지역을 다스릴 만한 풍신을 지닌 윤 직원)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경어체의 현재형 어조. 어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 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푼다.

“인력거 색이(삿이) 몇 분이당가?” /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서술자가 드러남. ‘드러난 서술자’가 전면에서 나와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평가해 줌. 서술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저 처분해 줘요!**”(인력거 값을 후하게 쳐 달라는 의도) /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응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인력거꾼의 말을 윤 직원은 ‘손님 마음대로 해라.’의 의미로 받아들임. **윤 직원의 심리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찢찢이 바라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윤 직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 뚜렛뚜렛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굵적굵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 “내일? 내일 무엇 허러 올랑가?”

윤 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기분 나쁜 일을 겪고 오는 길인 윤 직원**) 가뜩이나 긴 찡이 잔말을 씹힌대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하러 오다니, 외상 준 인력거 삿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 직원 영감은 인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어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덩치가 큰 윤 직원을 태우고 오느라 평소보다 힘들었던 인력거꾼)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일을 딱 잘라서 결정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어, 삿 말씀이올습니다.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인력거꾼의 소심한 성격**)

핵심 정리

- 갈래: 중편 소설, 사회 소설
- 성격: 풍자적, 비판적
- 주제: 일제 강점기 친일 지주 계층의 타락한 삶에 대한 풍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1930년대, 공간적-서울
- 특징
 - 반어적 희화화를 통해 인물을 풍자함.
 - 경어체를 사용하며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倉慈)와 같은 역할을 함.

전체 줄거리

일꾼이나 하인은 상전을 섬기기만 하고 대가(對價)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와서는 그 값을 깎겠다고 한다. 또한, 그는 나이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윤 직원 영감은 자기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소작인에게 땅을 붙여 먹고 살게 하는 것도 무슨 큰 자선 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런 식으로 부(富)를 축적한 윤 직원 영감에게는 쓰라린 기억이 있다. 출처가 불확실한 돈을 모았던 그의 아버지가 구한말(舊韓末) 시절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일본인이 들어와 불한당을 막아 주고 ‘천하 태평’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윤 직원은 진심으로 일본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돈을 버는 데는 무엇보다도 권력과의 결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 것이다. 또, 윤 직원은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鍍金)한 것으로도 모자라 손자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는 윤 직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의 분란은 끊이지 않는다. 아들 ‘창식’은 집을 돌보지 않고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만 탕진하고 있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아버지의 첩 ‘옥화’와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그래도 윤 직원 영감은 고압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던 차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과 그 일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 인물형을 풍자한 소설이다. 서술자는 윤 직원의 비윤리적인 언행들과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빈번하게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윤 직원을 희화화한다. 한편 경어체의 사용, 과장, 반어 등 다양한 요소들도 이 작품이 풍자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3강 | 태평천하 기출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웃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술 것이요, 머리에는 탕건에 받쳐 죽영(竹纓) 달린 통영갓[統營笠]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숨을 한 근씩은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신을 조마맣게 신고, 바른손에는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서른네 살배기 목직한 합죽선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더면 일도(一道)의 방백(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 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건너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뽑니다.

“인력거 색이(삿이) 몇 푼이당가?” /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 줘사요!” /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향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으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찢찢이 바라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끼러맵니다.

인력거꾼은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뚜렛뚜렛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굵적굵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 “내일? 내일 무엇 허러 올랑가?”

윤 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뜰이나 긴장이 잔말을 씹힌대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하러 오다니, 외상 준 인력거 삿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 직원 영감은 인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싫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어, 삿 말씀이올습니다.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쌩?” / “네에!” / “아니 여보, 이 사람…….”

윤 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루 허라구 허잖 있녕가?”

<중략>

“해가 서쪽으서 뜨겼구나?” /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멧 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 “중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꽂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꼬글트리

고 있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인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멧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 오랑개)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

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뎌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혈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땡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어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 「태평천하」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게 맞추어 서술자의 비판적인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
- ③ ‘-습니다.’로 종결되는 서술을 통해 서술자의 목소리를 생생한 구어체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감탄사와 비속한 표현이 반복되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2.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시황'은 윤 직원 영감과 비견되는 인물로 사회주의자가 된 손자 때문에 패가망신의 위기에 처하게 된 윤 직원 영감의 처지를 보여주는군.
- ② '경찰서장'은 윤 직원 영감이 손자에게 바라는 것으로 손자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의 위신을 높여 주기를 바라는 인물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부랑당패'는 윤 직원 영감이 사회주의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인물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④ '태평천하'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윤 직원 영감의 긍정적 시선이 담긴 말로 인물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로군.
- ⑤ '만석꾼'은 윤 직원 영감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상징하는 말로 물질적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어조로 서술하여 냉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하여 사건의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4. 윗글에 드러난 서술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소적인 어조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 ② 특정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중화한다.
- ④ 서술의 주체를 옮겨 가며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 ⑤ 직접적인 평가와 논평으로 풍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윤 직원 영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몰락한 양반의 후예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 ② 봉건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③ 일제 강점기의 사회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다.
- ④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속물적인 면모를 보인다.

6. 윗글에 나타난 '인력거꾼'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님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갈등을 심화한다.
- ②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한다.
- ③ 윤 직원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응대한다.
- ④ 윤 직원의 행동에 난처함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 ⑤ 점잖은 손님과 윤 직원 영감을 차별하여 응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냉소적 어조를 최대한 절제하며, 객관적 거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인물의 심리를 중립적으로 묘사한다.
- ② '~당가', '~요' 등의 방언 사용은 생생함을 부여하지만, 해설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독자에게 판단을 유보하는 효과를 유도한다.
- ③ 서술자는 인물의 외양 묘사에 치중하고, 내면 심리 서술은 자제함으로써, 인물의 행동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
- ④ 인물의 대화를 요약 및 정리하여 제시하고,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견지하며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 ⑤ 서술자는 직접적인 해설과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어리석음과 시대착오성을 부각하고, 풍자적 효과를 강화하며 주제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8~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웃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술 것이요, 머리에는 탕건에 받쳐 죽영(竹纓) 달린 통영갓[統營笠]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숨을 한 근씩은 두었음 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신을 조마맣게 신고, 바른손에는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서른네 살배기 묵직한 함죽선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더면 일도(一道)의 방백(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 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어미려고 하다가 도로 건너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풀니다.

“인력거 썩이(삿이) 몇 푼이당가?” /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 줘사요!” /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향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으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찢찢이 바라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끼러맵니다.

인력거꾼은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뚜렛뚜렛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굵적굵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 “내일? 내일 무엇 허러 올랑가?”

윤 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뜰이나 긴장이 잔말을 씹힌대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허러 오다니, 외상 준 인력거 삿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 직원 영감은 인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어, 삿 말씀이올습니다.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씩?” / “네에!” / “아니 여보, 이 사람…….”

윤 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루 허라구 허잖았녕가?”

<중략>

“해가 서쪽으서 뜨겼구나?” /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뭇 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꿇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멎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찌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

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멧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깁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뎌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땀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현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어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 「태평천하」

8. 윗글에서 윤 직원 영감이 손자 종학의 사회주의 활동 소식을 듣고 보이는 반응에 담긴 심리를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손자의 안위보다 가문의 몰락을 더 두려워하는 이기심과, 사회주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막연한 공포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 ② 사회주의 사상 자체에 대한 극렬한 반감보다는, 손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우려하는 보수적 태도가 강조된다.
- ③ 겉으로는 손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려는 위선적인 면모가 심층적으로 드러난다.
- ④ 몰락한 양반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허례허식과, 자본주의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표출한다.
- ⑤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대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손자의 행위를 부랑당패에 비유하며 극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반응을 보인다.

9.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작품 외부의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며, 인물 간의 객관적인 관계를 조망하고, 사건 전개 의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 ②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내면에 깊이 개입하여,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독자에게 인물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 ③ 서술자는 인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냉철한 어조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독자 스스로 인물의 본질을 통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서술자는 작품 전면에 등장하여, 직접적인 해설과 편집자적 논평을 제시하며, 특정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개성적인 서술 스타일을 구축하며 독자와 소통한다.
- ⑤ 서술자는 유머러스한 어조와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인물의 객관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며, 작품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여 독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10. 다음은 윗글의 서술 방식 및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 직원의 과장된 외양 묘사는, 그의 허세와 속물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풍자성을 더하는군.
- ② 인력거꾼과의 대화 장면에서 드러나는 윤 직원의 언행은, 타인에 대한 그의 경멸적인 태도를 희화적으로 보여주는군.
- ③ 서술자가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 '경망스럽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토박이말로 글을 쓰는 기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④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라는 서술자의 언급은,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윤 직원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외치는 대목은,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그의 그릇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어, '태평천하'라는 제목의 풍자적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군.

11. 다음 <보기>는 윗글의 창작 의도 및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배경으로, 몰락 양반 윤 직원 일가의 어리석음과 속물성을 통해 식민지 현실과 지배 계층의 허위의식을 풍자하고자 창작되었다. 작가는 윤 직원 영감의 입을 빌려 '태평천하'를 외치게 함으로써, 반어적 기법을 통해 일제 강점하의 암울한 현실과, 그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지배 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 ① <보기>에서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윤 직원 영감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현실과 괴리된 그의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서술 전략으로 볼 수 있군.
- ② <보기>와 윗글을 함께 고려할 때, 윤 직원 영감이 손자 종학의 사회주의 활동 소식에 격노하는 모습은, 식민지 지배 질서에 순응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지배 계층의 보수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③ <보기>에서 제시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윤 직원 일가의 물질적 풍요와 향락적인 삶은, 일제 강점하에서 변질된 지배 계층의 부도덕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 ④ <보기>와 윗글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윤 직원 영감을 광대나 캐러멜 대장감으로 인식하는 주변 인물들의 시선은, 윤 직원 영감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태평천하'라는 제목은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부 지배 계층의 그릇된 인식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작가의 비판 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군.

12. 윗글의 제목 ‘태평천하’가 작품 전체 맥락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목은 작가의 비판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윤 직원 영감의 현실 오인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반어적 장치로 기능한다.
- ②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며, 당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독자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제목은 윤 직원 영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평안을 갈망하는 개인의 절실한 소망을 표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태평천하’는 서술자의 객관적인 시각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인물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유도하고,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복선 역할을 수행하여 감동을 극대화한다.
- ⑤ 제목은 당대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중립적으로 반영하며, 특정 계층의 이념을 대변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주력하여 독자의 균형 잡힌 시대 인식을 돕는 객관적 지표 역할을 한다.

13. 윗글의 서술자가 윤 직원 영감을 풍자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의 직접적인 논평을 최소화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 ②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속물적인 면모를 희화화한다.
- ③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이기적인 본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④ 인물의 어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부각한다.
- ⑤ 반어적인 제목 설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14. 윗글에 나타난 풍자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에게 가벼운 웃음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선사하여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
- ② 사회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독자 스스로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도록 하는 것
- ③ 인물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통해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보편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 ④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권선징악적 교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독자에게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직접적으로 설파하고 계몽하는 것
- ⑤ 겉으로는 ‘태평천하’를 찬양하는 인물의 언행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과 지배 계층의 기만적인 허위의식을 반어적으로 폭로하고 비판 의식을 일깨우는 것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윗글에 인물의 회상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을 조명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은 서술의 초점을 ‘윤 직원 영감’에게 맞추어 부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인 인식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③ ‘-습니다.’로 종결되는 서술은 마치 서술자가 독자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어체라고 할 수 있다.

④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등 윗글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⑤ ‘으응’이라는 감탄사와 ‘죽일 놈’이라는 비속한 표현을 반복하여 인물의 분하고 화가 나는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정답] ⑤

‘만석꾼’은 윤 직원 영감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이룬 성과를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진시황’은 자식 호해(胡亥)로 인해 진나라가 망한 것에 비견하여 손자 때문에 패가망신의 위기에 처한 윤 직원 영감의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윤 직원 영감은 손자 종학이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경찰서장의 권세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부랑당패’는 윤 직원 영감이 사회주의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윤 직원 영감의 적개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윤 직원 영감은 식민지 현실을 ‘태평천하’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식민지 현실이 자신의 재산을 잘 지켜 줄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답] ③

작품 곳곳에서 서술자는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와 같이 개입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에서 방언은 전라도 사투리인 “~당가?”, “~요잉?”, “~랍쇼니까?” 등이 사용되었지만, 토속적인 분위기보다는 해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가 크다.

② 윗글에서 윤 직원 영감의 외양 묘사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는 인물의 풍채를 과장하여 희화화하려는 의도이지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윗글의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을 비판하고 희화화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어조로 서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윗글은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4. [정답] ⑤

서술자는 “통탄할 일입니다.”,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등 직접적인 평가와 논평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을 희화화하고 풍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① 윗글의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을 비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해학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냉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② 윗글의 서술자는 특정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서술하고 있다.

③ 윗글은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지만, 비극적 상황을 중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윤 직원 영감의 어리석음을 부각하여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가 ‘서술자’로 고정되어 있으며, 서술 주체를 옮겨

가며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정답] ①

윗글 어디에도 윤 직원 영감이 ‘몰락한 양반의 후예’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모습, 아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 등에서 봉건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③ 윤 직원 영감은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일제강점기 사회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가치관을 드러낸다.

④ 윤 직원 영감은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 사상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하며 극도로 격분하는 모습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⑤ 윤 직원 영감이 인력거 샅을 꺾으려 하는 모습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속물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6. [정답] ④

인력거꾼은 윤 직원 영감의 “그냥 가소!”라는 말에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뚜렛뚜렛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긁적긁적하면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어, 샅 말씀이올습니다. 해…….”와 같이 소심하게 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윤 직원 영감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난처함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인력거꾼이 윤 직원 영감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갈등을 심화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인력거꾼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다만 ‘오늘 벌이가 허사가 될까’ 염려하는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인력거꾼은 윤 직원 영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어쨌 영문인지를 몰라 뚜렛뚜렛하다가” 외상인가 “뒤통수를 긁적긁적하면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향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라는 부분에서 인력거꾼이 윤 직원 영감을 점잖은 손님과 차별하여 응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윤 직원 영감을 특별히 존경해서라기보다는 샅을 더 받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7. [정답] ⑤

서술자는 작품 곳곳에서 직접 해설과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여 인물의 어리석음과 시대착오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풍자 효과를 증대시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① 서술자는 냉소적 어조를 ‘최대한 절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냉소적 어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을 풍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방언 사용은 생생함을 더하지만, 해설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없다. 서술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독자에게 판단을 ‘유보하는’ 효과를 유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 묘사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 묘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 묘사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고 봐야 한다.

④ 인물의 대화를 요약 및 정리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제시하며,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술자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와 해설을 통해 풍자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8. [정답] ①

윤 직원 영감은 손자 종학의 신상보다는 가문의 몰락을 더 걱정하는 이기적인 면모와 사회주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감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보다는 자신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

③ 윤 직원 영감은 손자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사회주의 활동이 가져올 가문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위선적인 면모보다는 노

골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인다.

④ 윤 직원 영감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체면보다는 현재의 부를 더 중시하며, 자본주의적 욕망보다는 봉건적 질서 유지를 갈망하는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다.

⑤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손자의 행위를 부랑당패에 비유하고 있다.

9. [정답] ④

서술자는 작품 속에 직접 나타나 해설과 논평을 제시하고, 특정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서술 스타일을 만들면서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① 서술자는 작품 외부 '관찰자' 시점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작품 내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드러난 서술자'의 특징을 보인다.

②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내면'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인물 전체를 조망하며, 인물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보다는 풍자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③ 서술자는 '냉철한' 어조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관적인 해설과 평가를 통해 풍자적 효과를 높이며, 독자에게 특정한 관점을 제시한다.

⑤ 서술자는 '유머러스한' 어조와 '과장된'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풍자적 효과를 높이며,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와 해설에 치중한다. 작품의 '사실성'과 '객관성'보다는 풍자성과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을 택한다.

10. [정답] ③

서술자가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 '경망스럽다'고 언급한 부분은, 윤 직원을 희화화하기 위한 것이지 토박이말로 글을 쓰는 기법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① 윤 직원의 외양을 과장하여 묘사한 것은 그의 허례허식과 속물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풍자적인 효과를 높이는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인력거꾼과의 대화에서 윤 직원의 언행은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희화화하여 보여주

며,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낳는다.

④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지체를 바꾸어 ~ 꼬옥 맞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인물과 상황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⑤ 윤 직원의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는 외침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대비되어 그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며, 제목 '태평천하'가 지닌 풍자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1. [정답] ⑤

'태평천하'라는 제목은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부 지배 계층의 그릇된 인식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맞지만, 작가의 비판 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목은 오히려 반어적인 방식으로 작가의 비판 의도를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간접적인 장치로 기능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① 윤 직원 영감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보기>에서 언급된 작가의 창작 의도로 그의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서술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② 윤 직원 영감이 손자 종학의 사회주의 활동 소식에 격노하는 모습은, <보기>에서 제시된 대로 식민지 지배 질서에 순응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당시 지배 계층의 보수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③ 윤 직원 일가의 물질적 풍요와 향락적인 삶은, <보기>에서 언급된 시대 배경과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일제 강점하에서 부패하고 변질된 지배 계층의 부도덕한 일면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윤 직원 영감을 광대나 캐러멜 대장감으로 주변 인물들이 인식하는 시선은, 그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서술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 [정답] ①

제목 '태평천하'는 표면적으로는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윤 직원 영감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을 반박하며 그의 어리석음을 풍자하

는, 반어적 의미를 담은 장치로 기능한다.

②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세상의 ‘일면’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안정감과 희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목은 오히려 그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조롱하는 데 기여한다.

③ 제목은 윤 직원 영감의 심리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태평천하’는 그의 주관적인 소망을 표면화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현실과 그의 인식을 대비시켜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④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연민과 공감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냉소적인 어조로 인물을 풍자하며,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복선 역할보다는 풍자적 의미를 강조하는 제목이다. 감동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

⑤ 제목이 역사적 현실을 ‘중립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태평천하’는 특정 계층의 이념을 대변하기보다는, 지배 계층의 허위의식과 시대착오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목이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풍자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13. [정답] ①

윗글의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을 풍자하기 위해 직접적인 논평과 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숙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고맙겠습니다.’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술자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직접적인 논평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은 윤 직원 영감의 외양을 묘사할 때,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술 것이요, 머리에 탕건에 받쳐 죽영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와 같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허례허식과 속물적인 면모를 희화화하고 있다.

③ 윗글에서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 샅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소!”라고 말하거나, 손자의 사회주의 활동 소식을 듣고 격노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④ 윗글에서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 썩이(삿이) 몇 푼이당가?”,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와 같이 특징적인 어투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봉건적인 계층 의식과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윗글의 제목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의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작품 전체의 풍자적인 의미를 강화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4. [정답] ⑤

‘태평천하’에 나타난 풍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겉으로는 ‘태평천하’라는 긍정적인 상황을 찬양하는 인물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 실제로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배 계층의 기만적인 허위의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일깨우고 있다.

① ‘태평천하’의 풍자가 웃음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풍자의 목적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긴장 해소가 아니라, 비판적인 각성에 더 가깝다.

② 사회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희극적으로 과장하는 것은 풍자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태평천하’의 풍자는 단순히 객관적인 조망을 넘어서, 특정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③ 인물의 어리석음을 통해 인간 본성을 성찰하는 요소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태평천하’의 풍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나약함보다는 특정 시대, 특정 계층의 문제점을 더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④ 권선징악적 교훈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것은 풍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 문학의 특징에 더 가깝다. ‘태평천하’의 풍자는 직접적인 교훈 제시보다는 반어와 해학을 통해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도록 유도한다.